

파이낸셜뉴스

한중 경제공동위 칭다오서 개최, 코로나後 첫 '대면' 회의

기사입력 2020-08-02 16:11

**'포스트 코로나' 한중 간 경제협력 확대 공감대
한중 간 신속통로 제도 지속적 보완에 한목소리
우리측,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호소**



[서울=뉴스시스] 제24차 한·중 경제공동위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해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. 2020.08.02. (사진=외교부 제공) photo@newsis.com /사진=뉴스시스

[파이낸셜뉴스] 제24차 한·중 경제공동위가 지난 1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,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칭다오 현지에서 개최됐다. 이번 회의는 중국으로서도 코로나19 이후 타국과 처음 개최하는 '면 대 면' 정부 간 경제통상 협력 회의였다. 2일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이후 한·중 간 처음으로 열린 한·중 경제공동위 개최 사실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.

코로나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(習近平)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월과 5월 정상통화를 하

는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. 이번 경제공동위 역시 같은 차원에서 개최됐다.

한·중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 조업 재개 및 한·중 신속통로(패스트트랙) 신설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평가했다.

또 한·중 신속통로가 지난 5.1 시행된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우리측은 중소기업 입국 원활화 및 한·중 간 항공편 확대 등 차원에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.

리 부장조리는 한·중 간 방역 및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측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비대면 산업 등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.

양측은 '한·중 경제협력 공동계획(2021-2025)' 작성 준비 동향을 점검하고, 가급적 조기에 완성 및 채택하자는데 합의했고, 지난해 말 채택된 '신남방·신북방정책 - 일대일로 구상 연계 협력 1.5트랙 공동보고서'를 바탕으로 관련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이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고위급 교류 계기 경제 분야 성과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이 조정관은 게임·영화·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적극 당부하면서 농식품·보건·지재권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.

중국측은 올해 하반기 상하이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수입박람회 참석 등 한·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했고, 한·중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등 사업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가자고 말했다.

한·중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'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' 협상의 연내 서명 의지를 확인했다.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(WTO)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.

vrdw88@fnnews.com 강중모 기자

- ▶ **헝!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[헝스]**
- ▶ **'아는 척'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[두유노우]**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14&aid=0004470639>